

“美 십대, 복음에서 가장 멀어져... 우리 선교지는 스크린”

미주 CGN 20주년 기념예배
23일 일바인 온누리교회서
미주 넘어 중남미로 미디어 선교
확장 비전 선포

CGN 미주 지사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23일(토) 오후 4시에 일바인 온누리교회(박신웅 목사)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나누었다.

이날 예배에 앞서, 오후 2시에는 CGN 20주년 특집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 유진주 감독)의 시사회가 있었다.

일제 강점기,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일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이름 없이 복음만을 남긴 일본 최초의 해외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乘松雅休, 1863-1921)와 일본의 신사 참배에 저항한 오다 나라지(織田櫛次, 한국명: 전영복)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1896년, 명성황후 시해 소식을 들은, 노리마츠 마사야스 목사는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만행을 사죄하고,



CGN 미주 지사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23일(토) 오후 4시에 일바인 온누리교회(박신웅 목사)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 기독일보

소망을 잃은 조선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으로 향했다. 조선에 도착해, 조선인 청년에게 한글을 배우고 곧바로 노방전도를 나가지만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냉대를 받았다. 그는 조선인과 같은 옷차림을 하고, 한옥에서 생활하며, 수원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

또 다른 일본인 선교사 오다 나라지(織田櫛次, 한국명: 전영복) 역시 사죄하는 마음으로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을 찾았다. 일본인 이란 이유로 배척을 받으면서도, 1천여 명이 모인 숭실대 강당에서 신

사참배 반대하는 강연을 하다 일본 당국에 체포돼 고문을 받고 1939년 추방당한다. 추방 이후 일본에서 조선인을 위한 사역을 이어갔다.

영화 상영에 이어, 기념 감사예배가 박신웅 목사의 사회로, 박은성 목사 대표 기도, 전진국 CGN대

표 환영인사, 성경봉독, 강준민 목사 설교, 이영선 목사 축사, 기념 영상, 황지수 지사장 비전발표, 이정엽 목사 중보기도, 구봉주 목사 축도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진국 대표는 “하용조 목사의 ‘Acts 29’ 비전에 따라 선교사를 위한 방송으로 시작해, 미주를 비롯해 6개국 해외지사를 통해 1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며, 미주 지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선교 전진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적이고 창의적 방식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글로벌 선교 미디어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는 “중남미를 포함한 아메리카권에 대한 특별한 소명이 있다”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선교사를 미국이나 한국이 파송하는 시대가 아니고 남미 교회가 세계 선교를 앞장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미주 CGN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축사했다.

주디 한 기자 →2면에서 계속

배우 오윤아와 함께하는 밀알의 밤

2025 밀알의 밤이 오는 10월 3일(금)과 5일(주일) ‘돌보심’(He Cares for You, 베드로전서 5:7)이란 주제로, 배우이자 자폐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오윤아’ 집사를 메인 게스트로 초청하여 그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지난 2000년 ‘사이버 레이싱 퀸 콘테스트’ 우승으로 레이싱 모델로 활동한 오윤아 집사는 《올드 미스 다이어리》, 《연애시대》, 《언니는 살아있다!》, 《한 번 다녀왔습니다》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2006 SBS 연기대상 최우수 조



연상》과 <제 28 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드라마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민선 기자 →2면에서 계속

트럼프, 한국교회 압수수색에 우려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서
해명 “특검은 국회가 임명, 저의
직접 통제 벗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회와 군사 시설 압수수색 의혹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당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범위가 아니라고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

나?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는 글을 게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홍은혜 기자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한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식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5년 간의 달이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213-310-1800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무료 설치 서비스
FREE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미주도산기념사업회, 도산 심포니 오케스트라 창단 공연

한인 디아스포라 정체성 확립과 이민 역사 알리기 위해 기획

미주도산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 기념해서 도산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지난, 19일(화) 오후 7시 30분 LA 다운타운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창단 공연을 열었다.

이번 공연은, 창작 뮤지컬 도산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오케스트라와 합창, 성악 무대를 결합한 음악극 형식으로 표현했으며,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목사가 나레이션으로 각 장면의 상황을 설명했다.

무대에는 55인조 도산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가운데, 테너 최원현이 도산으로, 바리톤 김경태가 이토 히로부미로, 손나라가 도산의 부인 이해련으로, 김한나가 유관순으로 분했으며, 테너 오정록과 소프라노 김하빈이 듀엣 무대를

통해 도산과 부인의 사랑을 음악에 담았다.

‘우뚝서리라 도산!’, ‘평화의 나라’, ‘애국 행진가’, ‘거국가’ 합창 공연에 이어, 한국 가곡 ‘고향의 봄’과 ‘그리운 금강산’을 관객이 함께 부르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곽도원 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회장은 도산 정신은 ‘애기애타’(愛己愛他) 즉 곧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다며, “초기 미주 한인 선각자들은 바로 이 사랑의 정신을 따라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서로를 세워 주었고, 조국의 독립과 미래 세대를 위해 삶을 기꺼이 헌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산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확립할 수



미주도산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 기념해 도산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창단 공연을 열었다. ©Musical Dosan / SeaSun Theatre Artist Group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 기대를 밝혔다.

이민 역사를 기억해야

이번 무대의 총연출을 맡은 클라라 신 무대예술인그룹 시선 대표는 “음악을 통해 도산 선생님과 대한

민국의 역사와 또 미주 이민의 역사를 알고자 이 공연이 기획됐다. 미국에 왜 도산 우체국이 생겼는지 동상이 있는지 도산 인터체인지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모른다. 미국 사람들이 도산의 날(Dosan Ahn Chang Ho Day)을 제정하고, 동상도 세웠는데 정작 미주 동포들은 이분의 삶을 잘 모른다.”며 이 공연을 기획한 의미를 밝혔다.

그는 “도산 선생은 조국의 독립뿐 아니라 미주에 흩어진 한인들을 모아 단체를 세우고, 동포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헌신하셨다. 이민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며 “뮤지컬 도산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도산의 이야기와 함께 대한의 역사와 이민 역사를 전하는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선 기자

→ 1면 기사 <십대, 복음에서 가장 멀어져...>에 이어서

황지수 지사장은, ‘미주 CGN이 앞으로 20년 미국에서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위해, 지난 1년 간 청년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라인 리서치를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얻은 결론과 비전을 나누었다.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청년들이 있는 여러 곳을 많이 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온라인에서 리서치를 진행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몇 가지 있다. 미국 십대들이 기독교에서 가장 멀어진 시대가 되었다. 이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조사해 봤더니, 다 스크린 앞에 있었다. 스크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 세계에서 탑이다.

미국 청년들이 하루 평균 8시간 39분을 스크린 앞에서 보낸다. 10대들이 특히 틱톡, 유튜브, 게임 같은 플랫폼들을 소비하면서 하루 평균 8시간 39분, 평일에는 한 7시간 정도, 일주일에 33시간을 스크린에서 보내는데 잠자는 시간보다 길다.”

“청년들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크리스천 십대들을 만났다가 쉽지 않았고,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 필드는 스크린이 되어야 한다. 특히, 동영상 시청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CGN 아메리카는 미주 지역에 있는 10대들 20대들이 스크린을 통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의 첫 번째 미션으로 삼았다. 앞으로의 20년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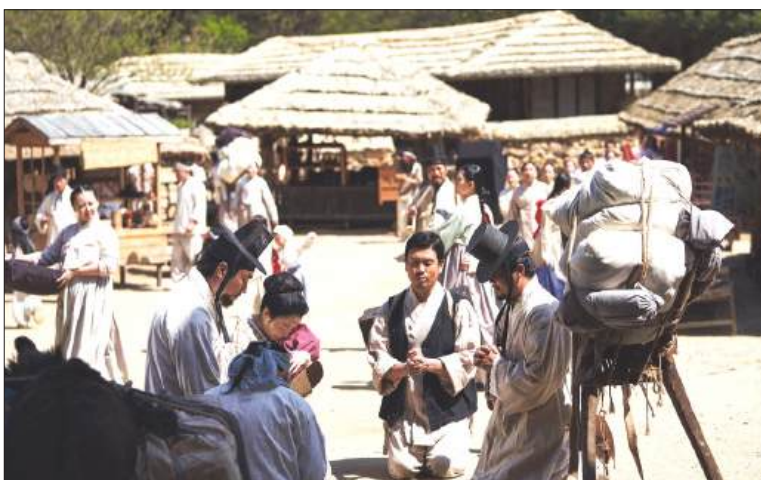
중남미 사역 확대에 대해서, 3년 내에 중남미 제작센터를 설립하고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GN 아메리카의 2024년 핵심 프로젝트 ‘더 파이널 프로젝트’, 영어권 Gen Z세대를 향한 새로운 시도인 ‘패스트 캠프’(Fast Camp) 등에 대해 나누었다.

이어서, 이정엽 목사(LA온누리교회)가 CGN 미주 지사를 위한 기도 시간을 이끌었으며, 구봉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라는 사명으로故 하용조 목사의 비전으로 개국한 CGN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왔다.

방송은 TV 로스앤젤레스 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던 무명(無名)의 일본인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 ©CGN

역 KXLA 채널 44.9, 유튜브 채널 ‘CGN America’, 모바일 ‘Fondant(풍당)’앱으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미주 CGN은 영화<무명>

상영회 신청을 받는다.

영화 ‘무명’ 교회 상영 문의
cgnfoundation@gmail.com 855-314-9100

→ 1면 기사 <밀알의 밤>에 이어서

오윤아 집사는 자녀의 자폐 진단을 계기로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고백한다.

아들 ‘송 민’이 처음 자폐진단을 받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슬픔과 절망을 느꼈지만, 이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능력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오윤아 집사

는 한인 교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나눌 예정이다.

밀알의밤을 통해 모금 된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밀알선교단에서는 2001년부터 장애인 학생들에게 장

학금을 수여하기 시작하여 2025년까지 총 \$3,146,600을 전달했다.

밀알의 밤 티켓은 \$ 20이며, 중앙일보 핫딜 사이트, 밀알의 밤 행사 당일 공연하는 교회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밀알의 밤 일정

▶ 10월 3일(금) 오후 7:30
ANC 온누리교회

▶ 10월 5일(주일) 오후 6:00
남가주동신교회

▶ 문의: 562-229-0001

→ 1면 기사 <트럼프, 한국교회 압수수색...>에 이어서

그는 회담 전 취재진에게도 “최근 며칠간 교회들에 대한 매우 공격적인 단속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도 들어가 정보를 취득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은

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와 관련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저의 직접 통제 아래 있지 않고,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검이 미군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통제 체계를 점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회담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을 언급하며 “혹시 그 특검이 정신 이상자 잭 스미스 아니냐, 미국에서 데려온 것 아니냐”라고 농담조로 발언해 배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트럼프가 지목한 잭 스미스는 2023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특별검사로, 올해 초 사임 후 오히려 선거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여러 특별검사팀이 교회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경기 가평과 서울의 통일교 본부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또한 비상계엄과 내란·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특검팀은 지난달 한미 공

동 운영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수색해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으나, 교회 압수수색 루머에 대해서는 재차 언급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답지 않은 일로 들린다”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가주 삼성 통운(주)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할로윈보다 ‘홀리윈’ ... 자녀 보호 위해 교회가 나선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남가주교협
할로윈을 교계 행사로 전환 촉구
홀리 윈, 할렐루야 나이트 진행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남가주 교협(회장 샘신 목사)이 오는 10월 31일 할로윈을 앞두고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날을 교계적인 행사로 전환시켜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새생명비전교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홀리윈’ 행사의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각 교회 교육 디렉터를 초청해 교육 세미나를 여는 방안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성서화운동본부는 미주 한인 교계가 깨어서 어린 자녀들을 세상 문화로부터 보호해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동 대표 송정명 목사는 “매년 10월 31일 해가 질 무렵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갖가지 모양으로 분장한 이후에 집집마다 찾아 다니면서 “Trick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남가주교회협이 오는 10월 31일 할로윈을 앞두고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날을 교계적인 행사로 전환시켜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사진은 20일 열린 기자회견 모습. © 기독교일보

of Treat”을 외치면서 캔디나 초콜릿을 받으러 다닌다. 할로윈의 전통은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이교적인 문화에서 나온 귀신, 사탄, 우상숭배의 문화”라며 “꿈 많은 어린 아이들이 단순한 재미로 하는 놀이 문화에 불과한데 그것을

가지고 옹졸하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즐거움을 빼앗아 가야 되느냐고 항의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런 문화는 어린이들이 잠시 즐기는 놀이 문화가 아니다. 몇가지 현실적인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 사탄 마귀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우상숭배로 연결될 수 있는 사탄 문화이다. 또 현실적으로 어두운 밤길을 걸어다니다보면 우발적인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세대가 악하다보니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캔디나 초콜릿에 독극물을 주입시키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일부 한인교회에서는 그날 어린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교회로 불러들여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명칭도 할로윈(Halloween Day)에서 홀리윈(Holy Win), 하베스트 페스티벌(Harvest Festival), 할렐루야 나이트(Halleluja Night) 등으로 부르고 있다”며 “이는 건전한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개념이 확산되어 교단 별로 각 지방 별로 교회 행사로 바꾸어 나가는 운동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했다.

또 “교계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를 바로 인식하고 각 교회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로 자리매김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토마스 맨 기자

이영선 목사,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아름다운교회 주일예배서
교육목회자 부족 사태 지적
대안으로 평신도 재교육 제시

지난 8월 10일,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 주일 2부 예배에서 미주복음방송 사장 이영선 목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묵사는 말라기 4장 5-6절 말씀을 본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과 다음 세대를 향한 과제를 진단했다.

그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마음을 열어야 하지만, 그 시작은 어른 세대의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교회의 급격한

변화와 어려움을 언급하며, “한인 교회뿐 아니라 미국 주류 교회 전반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한인 교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청년층의 이탈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가 없는 작은 교회가 늘어나는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과 전략적 준비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날 젊은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를 선택한다며, 교인 수 200명 이하 교회는 사실상 주일학교 및 어린이 프로그램을 갖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교회가 당면한 이 문제와 관련해 복음방송이 몇 가지 사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



이영선 목사가 다음세대 신앙 계승을 위해,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일보

다. ▲목회자의 영성 회복을 위한 세미나와 기도회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 캠페인 ▲주일학교 회복 운동이 그것이다.

“한국교회 80 퍼센트가 주일학



해,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고 말했다. ©기독일보

교가 없다. 이제 사역자로 안 된다
는 것이다. 주류 신학교에도 신입
생 수가 20명 미만이다. 그게 현실
이다. 명문 신학교도 마찬가지
다. 사역자를 세워서 프로그램을

라구나힐스교회 26명에 장학금 수여

라구나힐스교회(임학춘 목사) 장
학위원회(회장 박종수)에서 2025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
금을 전달했다.

지난 8월 10일(주일) 교회 본당에서 개최된 장학금 전달식에서, 계동우(UC 버클리), 김솔(CSU 플러튼), 김연희(사우스메일로 대학) 등 학생

26명에게 각각 \$2000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도담 파운데이션을 통해 몽골 청소년 20명에게 \$4,800을, 몽골 후세대학교와 간호 지정 장학금 \$2,800를 합해 \$61,600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몽골 유르교회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2년 출범한 라구나힐스교회

장학위원회는 한국에 교회, 학교, 병원, 사회 복지 기관을 설립한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꿈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다.

한편, 이 교회는 9월 14일 교회 설립 28주년 기념 감사 주일예배를 드린다. 조셉 리 기자





TRUSTED SCHOOL IN TOWN

[LEARN MORE](#)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크렌셔 장로교회, 창립 3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8월 24일(주일) 창립 3주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크렌셔장로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고전 15:10)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크렌셔장로교회(한현종 목사)는 지난 8월 24일(주일) 본당에서 창립 3주년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짐했다.



크렌셔장로교회(한현종 목사)는 창립 3주년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드렸다. ©기독교일보

한현종牧사는 마가복음 12장 13-17절을 본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그는 “데나리온에 가

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일부의 시간이나 재정이 아니라 “나 자신 전부”라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하나님은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원하신다”며 용서, 섬김과 희생, 그리고 겸손의 삶을 삶에서 살아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김유청, 백요한 두 사람이 시무장으로 임직하는 예식

이 진행됐다.

임직식에서는 시무장로 김유청, 백요한 두 명이 장립되고 남형웅 장로가 추대됐다. 안수위원단의 안수기도와 공포문 선포 후 장립패와 추대패, 화환이 전달됐다. 성도들은 박수로 새 일꾼들을 축하했고, 한 목사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히 섬기는 장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준현 집사의 축하후에 한현종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조셉 리 기자

주일 예배: 오전 10시 30분

EM 예배: 오전 10시 30분

토요 새벽: 오전 6시

주소: 1060 Crenshaw Blvd, LA, CA 90019, 전화: (213) 407-1600

제2회 한국동요부르기 대회

보나무직(BONA Music, 원장 이해자)이 주최하는 제2회 한국동요부르기 대회가 10월 11일(토) 오후 3시,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Kinder부터 12학년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타인종도 가능)이다. 참가 부문은 독창과 중창(최대 12명까지)으로 나뉘며, 독창과 중창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참가자는 지정곡 20곡 중 1곡을 선택해 1절만 부르며 되며, 편곡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정곡 목록: 솜사탕(강신욱 작사 • 이수인 작곡), 이슬(김동호 작사, 작곡), 풀꽃의 말(박수진 작사 • 김정철 작곡), 참 좋은 일(김원기 작사 • 정지원 작곡), 웃놀이(전유순 작사 • 이용수 작곡), 예쁜 아기곰(조원경 작사), 아기 염소(이해별 작사 • 이순영 작곡), 실버들(이슬기 작사 • 정윤환 작곡), 부채춤(홍명희 작사 작곡),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주고 싶어(정정명 작사 • 강동수 작곡), 다섯 글자 예쁜 말(정수은 작사 • 임수연 작곡),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세요(박진영 작사 • 강수현 작곡), 우주 자전거(김요섭 작사 • 송택동 작곡)

참가비는 독창 \$70, 중창 \$150이며, 반주자가 없는 경우 주최 측에 \$20으로 반주자를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구글폼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시상은 당일 실시간 집계 후 즉시 진행되며, ▲전체 대상(1명) ▲BONA Music 대회장상 ▲각 부문별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등이 주어진다.

문의: 213-476-6448, 213-300-7214, bonaalee12@gmail.com
참가비는 Pay to the Order: Bona Music으로 체크 발송 가능



[Google Form 온라인]

나성제일교회 “사랑하고 용서하며 베풀어야”

창립 58주년, 엘리베이터 완공
명예 장로, 권사 취임 예배

나성제일교회(서종천 목사)가 창립 58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본문은 학개 2장 1-9절.

서 목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며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집도 가꾸지 않으면 불품이 없어지듯,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가꾸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되신 주님이 왕으로 찾아오신다”며 “주님은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며, 영광이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 나성제일교회의 아픔을 언급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고백을 했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평을 이루고, 서로를 낮게 여기며 위로하고 베풀어야 한다”며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섬기고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



나성제일교회(서종천 목사)가 창립 58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교일보

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세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제일교회로 세워가실 것이며, 평강의 은혜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상기 목사(평강교회 원로)는 권면에서 “교회가 80만 불이라는 거금을 들여 8년에 걸쳐 엘리베이터 공사를 완성했다고 들었다”며 “이처럼 큰 헌신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교회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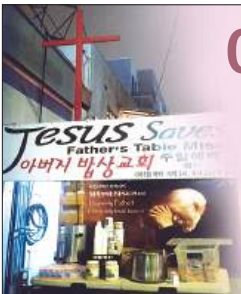
이어 “오늘 이 교회를 통해 세분의 장로와 권사님들이 임직을 받았다”며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

은 충성이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님께 인도하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 손님과 같았다면, 이제부터는 교회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충성된 직분을 잘 감당해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명예장로에 이현근, 최호균, 권영애 권사가 취임했으며, 교회 내 엘리베이터 완공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순서는 한선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HYUNDAI
GETAWAY
SALES EVENT

NEW 2025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Elantra Hybrid
Blue

한인 메카닉 서비스

한인 메카닉 서비스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한인 메카닉 서비스

한인 메카닉 서비스

NEW 2025 HYUNDAI Kona SE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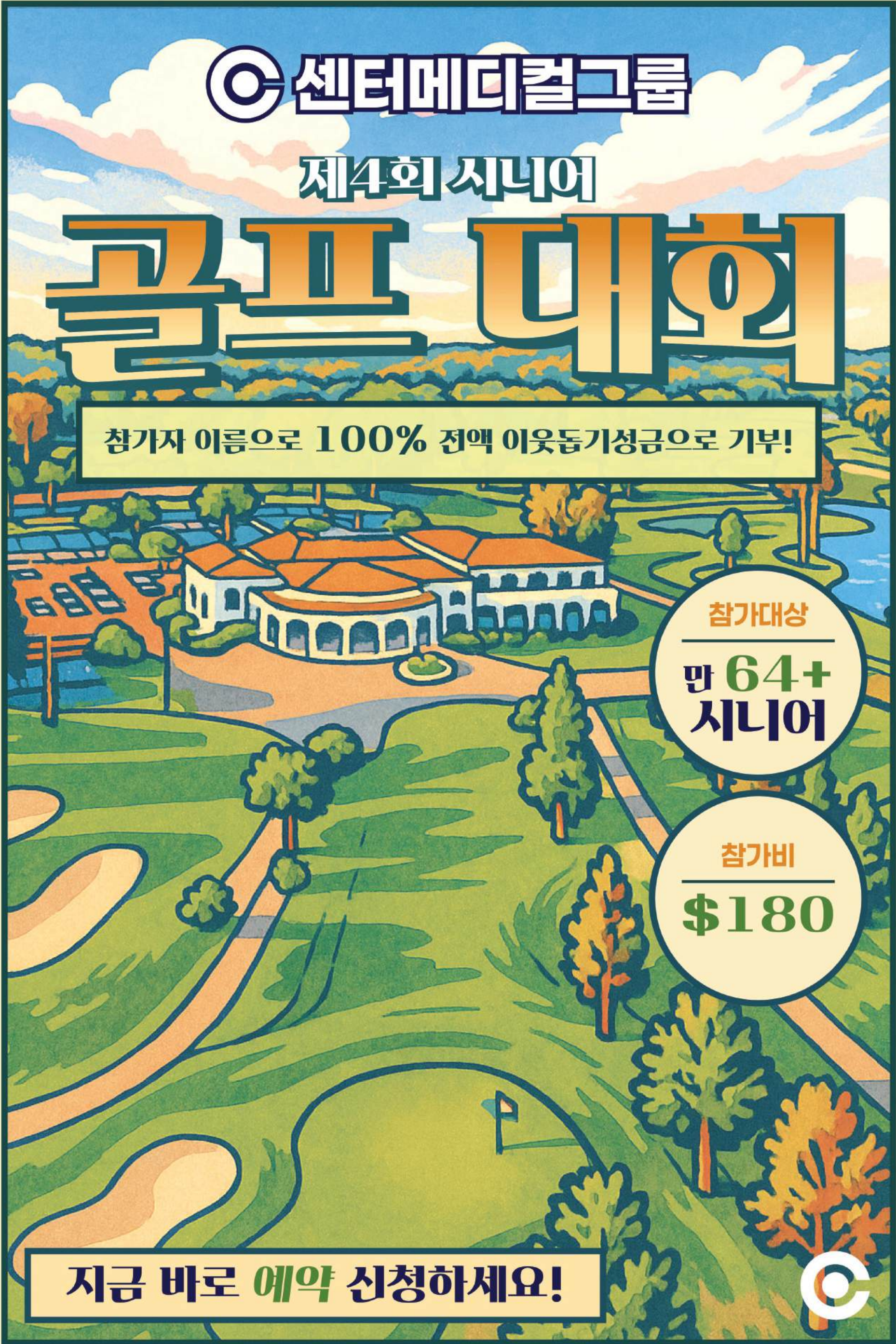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센터메디컬그룹

제4회 시니어

골프 대회

참가자 이름으로 100% 전액 이웃돕기성금으로 기부!

참가대상
만 **64+**
시니어

참가비
\$180

지금 바로 예약 신청하세요!

©

LOS COYOTES COUNTRY CLUB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NOV 3 **월요일** | **문의** (888) 847 - 3098
오전 10시 샷건 | **연락** 월 - 금 / 9 AM - 5 PM

총 \$10,000 상당의 푸짐한 상품을
참가자 전원과 함께 나눕니다!

*센터메디컬그룹 제4회 시니어 골프대회의 자세한 일정과 안내는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

퀴어신학은 이단, 기장 교단 차원의 단호한 결단 촉구

기장 동반대, 25-26일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서 선교대회 개최

한국기독교교장로회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환 목사, 이하 기장 동반대)는 25~26일 양일간 경기도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동성애 동성혼 반대 전국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퀴어신학의 확산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단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롬 12:2)’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성한 목사(전 예정함신 동성애대책위원장, 안양은혜교회 담임), 현숙경 교수(침신대),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가 강사로 나서 각각 퀴어신학과 차별금지법 등 여러 문제를 다뤘다.

첫 강의에서 김성한 목사(전 함신 동성애 대책위원장)는 퀴어신학을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라 규정하며, 이를 교회를 허무는 신학적 도전으로 지적했다. 그는 퀴어신학이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묘사하고, 동성애를 구원의 조건과 연결시키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별 구분 자체가 없어진다고 말하는 등 정통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이단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도 미디어와 학계, 교육 현장을 통해 퀴어 사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저지 등 교회의 각성과 저항을 촉구했다.

두 번째 강사인 현숙경 교수(침신대)는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적 흐름을 분석하며 “인류 역사 속 세계관은 고대, 중세, 근대,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치며 변화를 겪어왔다. 고대는 초월적 신의 권위를 인정했으나, 근대에 들어 르네상스

와 계몽주의가 인간 이성과 자율을 강조하면서 사회 전반에 반성경적 사상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주목하며 “과학적 합리주의와 진화론, 유물론은 무신론적 사고를 확산시켰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면서 다원주의와 해체주의를 주류로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 교수는 현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지적하며 “교육·문화 영역에서는 인본주의 교육과 성적 자유주의가 확산됐고, 사회·윤리적으로는 전통적 도덕이 해체됐다. 철학과 사상에서는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절대적 가치를 허물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창조 절대 대신 생태 위기 담론이 강조됐다. 특히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성과 가정 질서를 뒤흔드는 대표적 산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유엔(UN)을 중심으로 반성경적 세계관은 국제적으로 제도화되며 성평등, 성교육, 젠더 정책 등을 세계적 규범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에 강하게 권고하고, 국내 법과 정책에 유입되면서 전통적 가정관과 성윤리, 생명존중 가치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숙경 교수는 마지막으로 교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첫째, 분별하라 - 성경적 세계관으로 반성경적 사상을 구별하는 지혜를 찾으라. 둘째, 행동하라 -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 전파하라. 셋째, 기도하라 - 영적 전쟁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가 사회 속에 회복



기장 동성애 동성혼 반대 전국 선교대회에 참석한 이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기장 동반대 제공

되도록 기도하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강의에서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 사례를 통해 해당 법안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억압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교회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도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회 마지막 날, 기장 동반대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올해 열리는 제110회 기장 총회가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한신대와 신대원에서 퀴어신학을 가르치거나 추천한 교수·목사 퇴출 △퀴어신학을 옹호한 김희현 신대원장 후보자의 인준 부결 △총회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 등이 포함됐다.

기장 동반대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퀴어신학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신학

계에 유입되었으며, 2018년 테오도르 제닝스의 방한 강연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됐다. 최근에는 한신대 신학대학원과 기장의 일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도권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기장 동반대가 제시한 기장 내 이러한 움직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기장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단독으로 찬성하는 발표를 내어, 교단이 동성애 옹호 교단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기장 총회는 2021년 제106차 총회에서 ‘성소수자 연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3년 만에 성과가 거의 없어 해체된 바 있다.

셋째, 2021년 10월 6일 한신대 신학대학원 채플에서는 ‘드래그 퀸 예수’가 등장해 교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음에도 학교 당국은 어떠한 사과도 내놓지 않았다. 넷째, 제107회 총회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의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바꾸려 했으나 총회의 반대로 부결됐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념

차이는 매우 크다. 다섯째, 기장 양성평등위원회가 전국 교회에 실시한 ‘여성 인권 실태조사’ 문항 중에는 성별을 ‘남성·여성·기타’로 선택하도록 한 전례 없는 항목이 포함됐는데, 항의가 빚발치자 ‘기타’를 삭제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여섯째, 제108회 총회 문서에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성 평등’이라는 퀴어 집단의 용어가 삽입되려 했으나 부결됐다.

일곱째, 한신대는 2024년 9월, 퀴어신학을 목사 후보생들에게 가르치고 『퀴어 성서주석』 번역에 참여한 교수를 교목실장으로 임명했다. 여덟째, 기장 동반대가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1,124명이 동참했지만, 제109회 총회는 ‘동성애·동성혼 반대 선언’을 끝내 거부했다. 아홉째, 이번 제110회 총회에서는 목포노회가 ‘퀴어신학의 이단성 검증 및 총회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을 현의했으나, 총회는 맞불로 ‘성소수자 목회연구특별위원회 신설’을 현의했다. 기장 동반대는 “이는 기장의 동성애자 편향적 태도로 비칠 수 있어 교단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정 함신, 통합, 백석, 대신, 기감 등 주요 교단은 이미 총회 결의로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으나, 기장 내부에선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장 동반대는 이번 대회를 통해 퀴어신학 확산을 교회의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국교회와 교단이 성경적 가치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교회 헌금, 50대의 기혼·중직자들이 많이 한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층은 50대의 기혼자와 중직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26일, 기부 관련 최신 통계 자료를 소개하면서 종교단체 헌금과 같은 특별 기부형태도 살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기부자 기준)은 59만 원으로 나타났고, 종교단체 기부액은 91만 원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또 한국기독교목

회자협의회(한목협)의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에 따르면, 교회 출석 기독교인의 월 평균 헌금액은 2017년 17만 6,000원에서 2023년 19만 5,000원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2025년(목데연) 조사에서는 24만 원까지 높아졌다. 종교별로는 기독교인이 19만 5,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인은 10만 5,000원, 불교인은 7만 4,000원이었다. 이 밖에 교회 출석자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목데연 조사에서 기혼

자는 월 평균 헌금액이 27만 원으로 미혼(13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직분별로는 중직자가 38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집사 24만 원, 일반성도 16만 원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헌금액이 월 평균 3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 26만 원, 40대 24만 원, 30대 17만 원, 20대 11만 원 순이었다. 목데연은 “특히 주목할 점은 국민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에서 종교단체 기부가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

며, 기혼자와 중직자의 교회 헌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윤실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2023년)에서 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으로 ‘재정투명성’이 2위권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교회 밖에서도 교회의 재정 사용에 대해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목데연은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 내부적으로 헌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공개하고, 성도들이 기부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나눔의 영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강조해야 한다. 기부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를 넘어, 청지기 정신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 행위임을 설교와 교육을 통해 성도들에게 깊이 각인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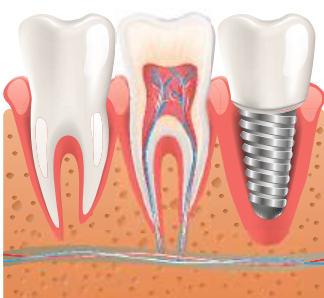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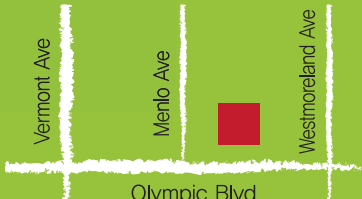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서울메디칼그룹과 한미메디컬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두 메디칼그룹의 마음을 모아,
5,500여명의 주치의와 전문의가
이제 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킵니다.
더 넓어진 진료와 다양해진 혜택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더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를 찍고 SMG 카카오톡채널에 방문하세요!

21년을 걸어온 개척교회… ‘답이 없다’는 곳, 하나님이 일하셨다

발렌시아 샘물교회 이진창 목사 부부 간증

"개척교회, 이민교회, 작은교회…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도 이 길을 갑니다"

지난 21년간 캘리포니아 발렌시아 지역에서 '발렌시아 샘물교회'를 섬겨온 이진창 목사와 사모 안보슬 사모가 TV 기독일보 '늘새롭게' 방송을 통해 진솔한 간증을 나눴다. 2004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에 순종해 시작한 교회.

단 세 명으로 시작했던 교회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고, 지금도 살아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믿음 하나뿐

이진창 목사가 개척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33살, 전도사였고, 아내 내는 29살. 교인도, 후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시작하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부였습니다”

교회는 외진 상가의 구석 빨래방 옆, 리커스토어 옆 공간에서 시작했다. 2살배기 아들, 교육부 한 명, 성인 한 명, 그리고 목회자 자신. 누군가 보기에는 ‘교회’라기보다는 ‘가정 모임’에 가까웠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셨다.



발렌시아 샘물교회 이진창 목사와 안보슬 사모

함께 울고 기도할 수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모 안보슬 사모는 6학년 때 아버지를 간암으로 잃으며, 어머니의 전도사 사역을 통해 신앙의 길을 접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어머니가 ‘사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셨지만, 사모는 “엄마는 딸을 모른다”고 웃으며 거절했다고.

“그러나 결국 기도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가장 예쁠 때가겠다고 기도드렸고, 그 확신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목회의 동역자”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출발했다. 남편 이진창 목사는 사모의 콜링을 기다려주었고, 사모는 “같이 가는 사역이 되길 원한다”

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까지 조용히 기도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는’ 개척의 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성도 한 명 없는 3년,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훈련하셨습니다

이 사모는 개척 초기 3년간 성도 한 명 없이 드러졌던 예배 시간을 되돌아보며 말했다.

“반주도 없고, 회중도 없고, 목사님과 지뿐인 예배.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반주 없어도 예배할 수 있겠니? 사람이 없어도 예배자로 설 수 있겠니?’ 그 훈련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모는 ‘남편이자 담임목사’인

히 ‘부족한 중’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다. “100% 복음, 100%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내는 것. 그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콜링이 있다면, Go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개척교회를 꿈꾸는 사역자들에게 이 목사는 단호히 말한다. “콜링이 분명하면, 어려움도 고난도 모두 하나님이 감당케 하십니다. 콜링이 흔들릴 때 바람에도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콜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 사모도 덧붙였다. “동역 사모의 삶은 ‘같이 가는 삶’입니다. 역지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여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바이올린이 아니라 바이온이 되었다’는 말, 많이 듣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페이를 받는’ 동역자입니다.”

21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동행으로 채워졌다고 고백하는 부부. 그들의 목회는 단지 수치를 남긴 사역이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 살아낸 ‘순종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발렌시아 샘물교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25876 The Old Rd, Stevenson Ranch, CA 91381 (Lions Ave & Wiley Canyon 교차로 인근).
이윤준 기자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석하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CTC)가 최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교사, 그리고 다음세대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기독교 세계관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자리였다.

CTC는 세미나를 소개하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 전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애니메이션 속에는 어떤 메시지와 세계관이 담겨 있을까? 이번 특강에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정체성, 상처, 구원 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라고 했다. 강연은 유경상 CTC 대표이자 평택대 기독교 세계관 MTS 책임교수가 “KPOP

데몬 헌터스’ 세계관 읽기”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그는 이 작품에 대해 “화려한 무대와 액션을 넘어 한국인의 깊은 정서와 공동체 중심 세계관을 감각적 서사로 담아내며, 정체성 혼란과 공동체 결핍이라는 보편적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특히 주인공 루미의 갈등에 주목했다. 그는 “현대인은 소셜 미디어에서는 완벽한 페르소나를 보여주지만 현실에서는 상처를 감춘 채 살아간다”며, “루미가 ‘데몬 헌터’와 ‘K-팝 스타’라는 두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한국인의 관계적 자아 구조를 반영하며, 오늘날 세계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내면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고립과 단절이 남긴 상처를 언급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나눌 이가 있다면…’이라는 갈망을 품게 되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루미가 멤버와 팬들의 지지 속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한국적 ‘우리주의(Uri-ism)’를 판타지로 표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작품 속 가사 “홀로 어둠을 밝히라, 우리 노래 부르리라”를 인용하며 “혼자는 어둠이지만 함께하면 빛이 된다는 이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전 세계를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 대표는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는 하나님이 없는 치유, 죄 없는 수용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넷플릭스

라는 약점이 있다”며 “루미의 자기 수용은 상처를 끌어안는 데 머물지만, 기독교는 상처를 인정하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완전한 구원과 치유를 이룬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독교가 말하는 공동체는 단순한 감정적 연대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외침 ‘홀로 어둠을 밝히라, 우리 노래 부르리라!’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외쳐야 할 고백이다”며, “이 작품은 한국 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노래하며 살아내는 복음적 서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도전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환 기자

TV 기독일보 신앙간증

늘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일보 213-739-0403 / chdailya@gmail.com

* 미주기독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일보'를 검색하세요

You

Tube

美 국무부 “英 낙태 시술소
완충 구역, 중대한 자유 침해”



▲영국 의회 밖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리비아 토시치 볼트 박사. ©ADF International

미국 국무부는 영국 낙태 시술소 주변의 완충 구역이 ‘박해’에 해당되며, 표현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지난 2월 J. D. 밴스(J.D. Vance) 미 부통령의 개입 이후 나온 것이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이 집에서 기도한 것 때문에 공식 경고 서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추진한 스코틀랜드 의원 Gillian Mackay는 이를 “허위 정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주민들에게 경고 서한이 발송됐지만, 거기에 기도 금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맥케이는 한 인터뷰에서 “차가에서 기도하는 행위가 차가를 지나가는 사람에 따라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영국에서 일반 시민들이 낙태시술소 주변 완충 구역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례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 중에는 은퇴한 생물학자 리비아 토시치-볼트(Livia Tossici-Bolt)도 포함된다. 그녀는 본머스의 낙태 시설 근처에서 “원하시면 대화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2년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만 파운드(약 3,75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미 국무부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영국 내 ‘완충 구역’ 사례를 비롯해 유럽 전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검열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의 침묵 기도 탄압은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관계를 뒷받침해야 할 공유된 가치에서 벗어난 우려스러운 행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용히 서 있거나 동의 하에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기독교 법륜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이하 국제 ADF)은 이러한 발언을 환영하며, “낙태 시술소 완충 구역에서 기도하거나 표지판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소송은 부당하다”며 “영국이 ‘자유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ADF의 로칸 프라이스(Lorcan Price) 법률 고문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자유 사회의 근간”이라며 “미 국무부가 이 부당함을 지적한 것은 옳다. 영국 정부는 기본적 자유를 회복하고 완충 구역 법안을 폐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파키스탄 자라왈라 기독교인
공격 2년... 전국적 시위 나서



©Pixabay

파키스탄 펀자브주 파이살라바드 지구 자라왈라 지역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공격 사건 2주기를 맞아 현지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나서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16일(이하 현지 시간) 자라왈라에서 수천 명의 무슬림 군중이 꾸란 모독 혐의를 받은 두 기독교인 형제를 발미로 폭동을 일으켜 교회 25곳 이상과 기독교인 주택 85채를 불태우고 파괴했다.

사건 직후 전국적인 비난 여론이 일었고 300여 명이 체포됐지만, 부실한 수사 와 소송 지연으로 대부분 보석 석방되거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지난 6월 4일, 파이살라바드 반테러법원은 교회를 방화하고 기독교인 주택을 약탈한 혐의로 기소된 10명을 무죄로 선고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 수사 때문에 가해자들이 풀려났다”고 비판했다. 나머지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16일 자라왈라, 라호르, 카라치 등 주요 도시에서는 2주기를 맞아 집회가 열렸다.

자라왈라에서는 ‘피해자 위원회’ 주최로 기념 행사가 진행됐으며, 라라 로빈다니엘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보상과 재활 지원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며 “경찰과 일부 기독교인 인사들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응답할 때까지 평화적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르와다리 테흐리크(Rwadari Tehreek) 대표 삼슨 살라맛은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소수자를 ‘펀자브의 보석’이라 칭하지만, 자라왈라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며 “기독교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호르 언론인협회 앞에서는 기독교 활동가들이 집회를 열고 “정부의 무책임으로 극단주의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셸 초드리 ‘세실 앤 아이리스 초드리 재단’ 대표는 “신성모독범 남용과 국가기관의 무대응이 폭력을 조장한다”며 “정부는 약속한 보상과 장기적 지원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당시 폭동과 관련해 5,213명이 지목됐지만 실제 구속된 이는 380명에 불과했고, 이 중 228명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77명은 기소가 취소됐다. 엠네스티는 “정부의 무능과 소극적 대응이 자라왈라 폭력을 사실상 면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폭동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두 기독교인 형제는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또 다른 기독교인이 개인적 갈등으로 두 형제를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는 파키스탄을 2025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어려운 국가 8위로 꼽았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엔 Only 오전 8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부기도일 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참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세울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일종부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9-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토요새벽예배 오전 11: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오전 10:30 새벽 6: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매체: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영주동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찬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잡으며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종교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정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원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강해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한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 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아침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금) 새벽 6:00 (토/주일)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8: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주일 2부예배 11:00 A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유영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강해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성경이 말하는 예정과 자유의지



R.C 스프로울. ©wikipedia.org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R.C 스프로울의 기고글인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엇을 뜻하는가?’(What does it mean that God is sovereign?)를 23일(현지시각) 게재했다.

R.C. 스프로울은 리고니아 미니스트리(Ligonier Ministries)의 설립자이자, 플로리다주 샌퍼드에 위치한 세인트 앤드류스 채플(Saint Andrew’s Chapel)의 첫 번째 설교 및 교육 사역 목사, 리포메이션 성경대학(Reformation Bible College)의 초대 총장, 그리고 테이블톡(Tabletalk) 매거진의 편집주간으로 활동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예정과 자유 의지를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혼동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 의지가 단순히 이방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물론 세상은 인간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자유의지 개념을 널리 퍼뜨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자유 의지를 믿는다. 다만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유 의지는 인본주의적이거나 이방적인 자유 의지와는 다르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널리 퍼진 세속적 사상 중 하나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인본주의적 교리다. 이 사상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중립적이며, 선을 택할 수도, 악을 택할 수도 있는 능력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생각은 우리의 선택이 죄에 속박되어 있다는 성경의 계시를 무시한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죄의 굴레에 묶여 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권능만이 우리를 그 속박과 영적 죽음, 그리고 무력함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우리가 인간의 의지를 이해할 때, 세속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심각한 결핍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이 세상이 자율적인 자연법칙이나 물리법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심어놓았다.

그러나 성경은 우주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의 능력 안에서 유지되고 통치된다고 말한다. 나는 내 팔을 들어 올리는 작은 동작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할 수 없다. 내가 어떤 의지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주권적이지 않지만, 그 주권은 인간의 자유로 제한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주권자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한된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자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 제한된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에 미친다. 창조뿐 아니라 세상의 유지와 다스림, 그리고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 부르는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자연을 통치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일 뿐이다.

만약 우주 어디인가에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움직이는 단 하나의 입자라도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움직이는 입자는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필자는 한 번은 신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학을 가르친 적이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한 부분에 도달했을 때, 학생들이 비가해과 친구들을 수업에 데려왔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고백서를 그대로 읽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그리고 변함없이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 그리고 물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고백을 믿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영원토록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개혁주의 신학교였기에 약 175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그러나 약 75명은 손을 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신다고 믿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은 자신을 무신론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작정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고, 주권자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후 우리는 신앙고백이 말하는 의미를 더 깊이 살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차적인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으며, 인간의 의지를 폭력적으로 억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도, 죄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수세기 전,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다. “주권적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려면, 어떤 의미에서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허용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지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용적 뜻(permissive will) 개념을 꺼내 들며,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들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만들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실 뿐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주권자다.

하나님께서 필자의 죄를 허용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지혜롭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시고, 주권을 완전하게 행사하시기 때문이다.

요셉의 고백과 악의 한계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배신하고, 그를 노예로 팔아 감옥에 갇히게 했다. 하지만 훗날 요셉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 50:20)

성경은 악을 선이라 하지 말고, 선을 악이라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한다(이사야 5:20). 악은 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악조차도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재난과 주권

허리케인, 쓰나미 같은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말한다. “이건 자연의 우연한 사고다.” 그러나 보훈 회사조차 이런 것들을 “천재지변(acts of God)”이라 부른다.

9·11 테러 이후,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자 세상 언론은 격분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이사야 45:5-7)

9·11 이후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악의 실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일어났다. 둘째,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미국 전역에 “God bless America(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문구가 넘쳐났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주적 종이 아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천상의 벨보이”, “하늘의 산타클로스”처럼 여긴다. 필요할 때 불러서 좋은 것만 받으려 하지만, 그분의 절대 주권에는 무를 꿰지 않는다.

하나님의 네 가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네 가지 영역에 미친다: ▲자연 ▲역사와 인간의 일들 ▲도덕과 의무 ▲은혜의 주권이다. 그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명령할 권리를 가지셨고, “하지 말라”와 “하라”라고 말씀하실 권리를 가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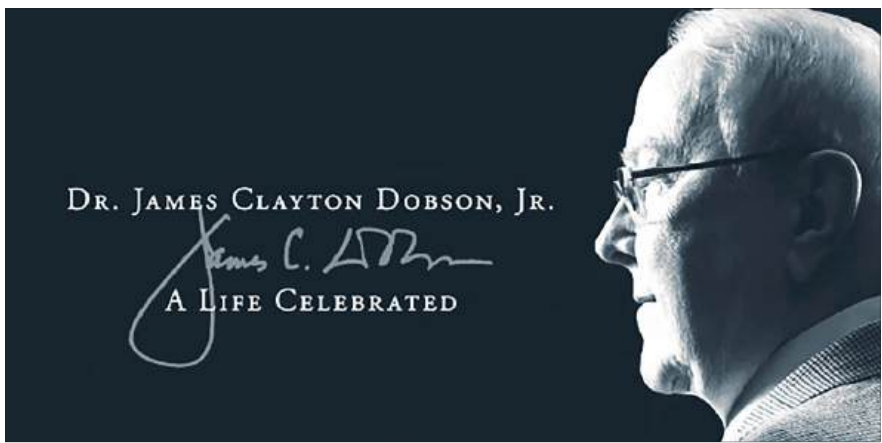
결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주에게서(from Him)”: 선행과 참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through Him)”: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짐, “주에게로(to Him)”: 모든 것의 목적은 필자나 독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이 글을 마친다.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최승연 기자

‘포커스온더패밀리’ 창립자 제임스 돕슨 박사 별세



©포커스온더패밀리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 제임스 돕슨(Dr. James Dobson)이 향년 89세로 별세하면서 전 세계 복음주의 진영이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

돕슨 박사는 라디오 프로그램 ‘패밀리 토크(Family Talk)’ 진행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수십 년간 기독교적 가치를 공공 영역에 전파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임상심리학자, 저자, 정책 전문가, 그리고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50여 년간 복음주의 운동과 가족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포커스 온 더 패밀리(Focus on the Family)’를 비롯해 ‘가족 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자유수호연맹(ADF)’ 등 주요 단체의 창립과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동료들은 그를 두고 “언제나 사명에 집중한 지도자”라고 기억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돕슨의 죽음을 두고 각계 기독교 지도자와 보수 진영 인사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가족연구위원회 회장 토니 퍼킨스는 “돕슨 박사만큼 가족에 긍정적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향을 끼친 이는 드물다”며 “그의 유산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잭 그래함 목사(프레스턴우드 침례교회)는 “돕슨은 단순한 심리학자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가르친 지도자였다”며 “이제 그

는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DF 대표 크리스텐 왜거너는 “오늘 우리는 진리의 강력한 목소리를 잃었다”며 “그러나 그의 담대한 리더십과 복음에 대한 헌신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랭클린 그래함(BGEA 회장) 목사는 “돕슨 박사는 거의 50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며 “그는 가정과 도덕, 성경적 가치를 변호하며 한 세대를 이끌었다”고 추모했다. 그렉 로리(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십) 목사는 “돕슨의 흔들림 없는 사역과 가정 사역에 대한 헌신은 나와 하비스트 사역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캐롤 토바이어스(내셔널 라이트 투 라이프) 회장은 “돕슨의 생생운동에 대한 공헌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며 “그의 목소리와 비전은 앞으로도 생생 수호의 대의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애런 베어(센터 포 크리스천 버추 회장), 조셉 디수자 인도 성공회 대주교 등 세계 각국 지도자들도 돕슨을 “기독교 가정과 결혼을 위한 가장 위대한 목소리 중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사역을 기렸다.

이미경 기자

저스틴 비버 “용서와 사랑을 주신 예수께 감사” 신앙 고백



팝스타 저스틴 비버. ©기독일보 DB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저스틴 비버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예수님께 감사하다”며 “그분은 자격 없는 나에게도 용서와 사랑을 매일 아침 새롭게 허락하신다”고 밝혔음을 최근 보도했다.

비버는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다. 예수님께 감사하다”며 “그분은 매일 아침,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맞아준다. 그 사랑은 결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지만, 너무나 자유롭고 풍성하게 주어진다. 그 사랑이 없이는 하루를 버릴 수 없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나를 만나주신다”고 전했다. 이 게시물은 지난 19일 오전 기준 약 5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CP는 비버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해 왔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고, 선택하시고, 기뻐하신다”며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자기 혐오를 깨뜨리고, 내 안의 부끄러움을 끌어내린다”고 표현했다. 그는 “그분의 사랑은 강요가 아닌 초대”라며,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버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도 신앙을 의지해 왔다. 2022년, 비버는 램지 헌트 증후군으로 얼굴의 일부가 마비돼 공연을 취소해야 했을 때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한

다”고 고백했다.

비버는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 세례를 받았으며, 2020년에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그 경험을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2021년 부활절에는 첫 복음 앨범인 ‘Freedom’을 발표하고, 같은 해 ‘The Freedom Experience’라는 제목의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찬들러 무어, 캐리 조브 등 유명 워십 아티스트들이 함께했으며, 약 2만 명의 참석자가 홈리스와 소외계층을 섬기는 봉사 활동에도 참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목사 주다 스미스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열어 전 세계 팬들과 함께 신앙을 나눴다. 2019년에는 ‘은혜(grace)’라는 단어를 오른쪽 눈썹 위에 새기며 자신의 믿음을 몸에 새기기도 했다. 이 외에도 왼쪽 다리에 새긴 예수의 이미지, 가슴에 새긴 십자가, 왼쪽 팔에 새긴 그리스도의 그리스어 심볼,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시편 119:105)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타투 등 그의 몸 곳곳에는 신앙을 상징하는 문구와 그림들이 새겨져 있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 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가리솔)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들레)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오전)예배 오후 7:30 한아침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침례 저녁 7:45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www.icccla.org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오전11:00
금요일(오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지동근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목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침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조종철 담임목사**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oj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축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배변은 숙면제거와
먹으면서 제충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부터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차림 오박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동행과 상생 ‘교육 사역자 12주 훈련과정’ 성료

다음세대 사역을 위한 새로운 방안 제시

지난 8월 23일(토), 미주복음 방송에서 동행과 상생 교육사역자 12주 훈련과정 수료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수료식은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CPU)이 릴리재단(Lilly Endowment)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세대통합예배 프로젝트의 세미나와 병행 개최되어, 미주 한인교회 다음세대 사역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실재적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세영 교수가 AI를 활용한 예배와 사역 기획을 주제로 강의하며, 각 교회별 소그룹으로 나누어 실제적인 세대통합예배를 기획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미 세대통합예배를 실행하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가 공유되면서 아직 시도하지 못한 교회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가 되었다.

세대통합예배를 드리게 되는 교회에는 릴리재단과 CPU로부터 사역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18개 교회 총 32명 참가, 23명 수료

이번 12주 과정에는 18개 교회에서 총 32명이 참가했다. 여름 사역 속에서도 신학교 교수들의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3명이나 과정을 마쳤다.

수료식에서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은 “다음세대 사역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동행과 상생을 통해 교육부의 미래와 소망을 회복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내며 참가한 교회와 수강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회 중 주일 예배 시간에 별도의 수료식을 시행한 주님 Church 최현규 담임목사는 “신학과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교육전도사를 세우기 어려운 교회를 위해 동행과

상생 그리고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이 앞장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며 “이번에 교회 사역자들이 한층 전문성과 영성을 훈련받았다”고 크게 만족감을 표했다.

수료생들의 간증

이번 훈련 과정에 참여한 가스펠교회 김혜선 사모는 “동행과 상생의 배움이 전 세계 한인 교회에 전해질 수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작은 고민 교회들도 사역에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사모는 특히 “글로벌 청소년 사역에 대한 강의가 가장 큰 울림을 주었다. 신앙 교육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실제 선교와 봉사 현장에 나아가도록 돕는 사명임을 배웠다”며 깊은 감동을 전했다.

페이튼 박(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집사는 “한국계 미국인 정체성과 기독교 교육, 부모 교육과 협력에 관한 강의가 가장 인상 깊었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화적 인식의 중요성과 신앙 형성에서 가정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 외에 한 참가자는 “처음에는 중소교회 교육부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시작했지만,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12주 과정 중간쯤 큰아이가 중고 등부의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이 강의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지혜로 아이들과 교회 교육부를 바라보는 시선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간증했다.

유치부 사역자는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부 사역을 맡아 섬기고 있는데,

그동안은 경험과 열정만으로 감당해왔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제 사역에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놓치고 있던 점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며 “예배가 더 깊이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위해, 저 스스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해야 함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님 Church 박인수 목사는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교육목사로 사역하게 되면서 미주한인교회의 교회학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한인 1.5세·2세의 문화적 정체성과 신앙적 정체성 사이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앞으로 사역 현장에서 자녀 세대를 만날 때 외적 모습뿐 아니라 내면의 갈등과 고민까지 헤아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과 전망

동행과 상생 사무총장 송병주 목사는 “하반기에는 2세 사역자와 1세 교회 리더들의 소통과 동역을 강화하는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행과 상생 1기 수료생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정기적인 모임과 후속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다. 내년 초 12주 한국어 과정 2기를 다시 모집할 예정이다.

엘에이 아리랑 연합 소식

한편, 엘에이 아리랑 연합의 세 교회(세계선교교회, 나성재건교회, 올림픽장로교회)는 지난 여름 청소년 캠프에 이어, 9월 5일(금) 저녁 6시 세계선교교회에서 연합 찬양집회 “Taste and See the Goodness of God”을 개최한다.

앞으로 정기 찬양집회와 겨울 수련회도 계획 중이며, 어린이 연합 사역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미주복음방송 기사 제공

8월 23일 미주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교육 사역자 12주 훈련과정〉 수료식 참가자 단체사진(왼쪽). 주님 Church 24일 주일예배 중 진행된 수료식(오른쪽).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25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48시간 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송영 투근 설렁탕

아침 스페셜

표고우거지해장국
or 통근설렁탕
or 북어국

\$10⁹⁶ +tax

매일 | 7:00AM ~ 10:00AM



GOOD MORNING SPECIAL



화요일 ^{Only} 투근스페셜

- ▶ 곱배기설렁탕 **\$18⁵⁰** +tax
- ▶ 곱배기해장국 **\$18⁵⁰** +tax
- ▶ 곱배기도가니 **\$26⁵⁰** +tax

목요일 ^{Only (1+1)} 투근스페셜

갈비탕 or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해장국을 무료로 드립니다.

\$22¹⁵ +tax { 갈비탕 or 도가니탕
& 표고우거지해장국



5주년기념 스페셜 Coming Soon

Uber Eats
딜리버리
합니다.

(213)277-1339 | (213)263-9446
2717 W. Olympic Blvd. #108, Los Angeles, CA 90006

단체주문 환영
주 7일 오픈 7AM ~ 10PM
(구)베버리순두부 자리

김영한 칼럼

부활하신 예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IV)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상임대표

부활 사건과 빈 무덤은 같이 간다
예수 부활사건과 빈 무덤의 사실은 함께 간다. 저자는 예수의 부활과 관련한 빈 무덤의 역사적 진실을 다음 같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예수가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의 무덤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의 빈 무덤에 관하여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은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이었다. 여인들에겐 증인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가부장 문화권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던 여인들이 부활 증인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여인들이 빈무덤 사건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것이 제자들이 꾸며낸 시나리오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여인

들이 부활 사건에 대한 증인 됨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예수의 빈무덤 사건은 예수가 역사에 나타난 다른 종교들의 교주인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무함마드와 다른 그의 존재의 특성이다.
둘째, 빈 무덤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나온 것이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현장의 병정들에게 뇌물을 주어 제자들이 자기 선생의 시신을 밤에 몰래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트리게 하였다. 마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공모한 사실을 다음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마 28:11-15). 로마 군인들은 돈을 받고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하였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밤에 도둑질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허위 사실 유포 조치는 예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 부활 사건 자체가 역사적 진정성 질문에 있어서 당혹성의 기준을 충족시킨다. 부활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의 사건에 대하여 당혹을 금치 못하여 숙직(宿直)하던 자들과 같이 무서워하며 두려워하였다(마 28:4-5, 8). 마가는 여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했다고 보도한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막 16:8).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때 제자들은 현대의 회의적인 불신자들과 같은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여인들이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막 16:11).
넷째, 빈 무덤이 사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생겨났다.
예수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당시 십자가에 처형된 수치의 상징인 예수가 “그리스

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당시 유대교에서 신성모독으로, 로마 총독에 의하여 십자가라는 수치스러운 극형에 처형된 수형(受刑)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가 부활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목숨이 두려워 도망간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다.
다섯째, 빈 무덤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 부활 케리그마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유대교라는 제도 종교의 박해를 받던 예수 추종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동력은 예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 그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 신약학자 울리히 빌켄스(Ulrich Wilckens)는 무덤에 시신이 놓여 있는 한 당시의 예루살렘에서 부활 선포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제자들이 만일 환상을 보았다면 예수의 무덤이 비지 않았을 것이며, 제자들의 신앙고백은 당시에 이미 거짓된 체협으로 판명되었을 것이다. 빈 무덤이 부활 자체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부활신앙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계속>

신성욱 칼럼

신앙 전수의 중요성



신성욱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매년 영국을 방문할 때면 우선 3일간은 스코틀랜드를 먼저 탐방한 후 영국에 와서 나머지 일정을 소화하곤 한다. 스코틀랜드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나라’이다. 스코틀랜드는 한때 ‘유럽의 종교개혁 심장’ 혹은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라 불렸다.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루터와 칼빈의 개혁 정신이 존 녹스(John Knox)를 통해 스코틀랜드에 뿌리내렸고, 그는 장로교 제도와 말씀 중심의 예배, 성경 교육을 도입했다.
1560년, 스코틀랜드 의회는 로마 가톨릭과의 결별을 공식 선언하고, ‘Scots Confession’이라는 신앙 고백서를 채택했다. 그들의 열정은 단지 예배와 교리 개혁에 그치지 않았다. 가정과 학교에서 성경 교육이 이루어졌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는 수

백 년 동안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유지했고, 국민 대다수가 크리스천이라 고백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면서 변화가 찾아왔다. 2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이 느슨해지고,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통이 약해졌으며, 교회가 점점 다음 세대보다 현 세대의 편의와 필요에만 집중하면서 복음의 전승이 끊어져 버렸다. 2022년 인구조사 결과, 스코틀랜드에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 밝힌 사람은 불과 20% 남짓. 반면, 절반이 넘는 51%가 “나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수백 개의 예배당이 문을 닫았고, 지금은 관광객이 사진을 찍는 ‘옛 건물’로만 남아 있다. 종교개혁의 심장이라 불렀던 그 땅이, 이제는 심장 박동이 멈춰버린 비극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7)
불과 한두 세대 만에 ‘기독교의 나라’가 ‘세속화된 나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았고, 가정 예배와 말씀 나눔이 사라졌으며, 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 다음 세대를 품고 양육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소홀

히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 곳곳에서 교회들은 문을 닫고 세상의 건물로 변해갔다. 매년 방문하는 영국 교회들과 별 차이가 없다.
글래스고(Glasgow)에서는 19세기 지어진 웅장한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 사람들이 찬송 대신 술잔을 부딪치며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고, 에딘버러(Edinburgh)에서는 오래된 예배당이 카페와 공연장으로 개조되어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곳들도 적지 않다.
지금 한국교회 역시 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예배당은 여전히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학교와 청년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 과거 우리 어린 시절에 비해 1/5로 뚝 떨어져 버린 지 오래다.
그러잖아도 결혼을 잘 하지 않고, 결혼해서도 자식을 잘 낳지 않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는 대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때에 부모 세대가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스코틀랜드와 영국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 교회는 단지 ‘성도들의 신앙적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사명’을 지닌 공동체이다. 가정 역시 그저 자손을 낳아서 기르는 곳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키는 일을 하는 소중한 장’이다.

성경은 신앙 전승을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강조한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는 ‘날카롭게 새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깊이 새겨 넣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신앙은 저절로 전해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새겨주지 않으면 잊히고, 가르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가정에서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 식탁 앞에서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작은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화려한 건물이나 편리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스코틀랜드와 영국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이자 소망이다. 경고는, 복음의 전승을 멈추는 순간 교회가 쇠퇴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은, 한 세대가 다시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 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시라

ΙΧΘΥΣ

러빙워십 찬양 콘서트 익투스 — ΙΧΘΥΣ

Speakers 강준민 목사, 구봉주 목사
박은성 목사, Joseph Lee 목사

Loving Worship Praise Team

Tickets \$10 | 213.357.1565

Guests 조혜련, 브라이언 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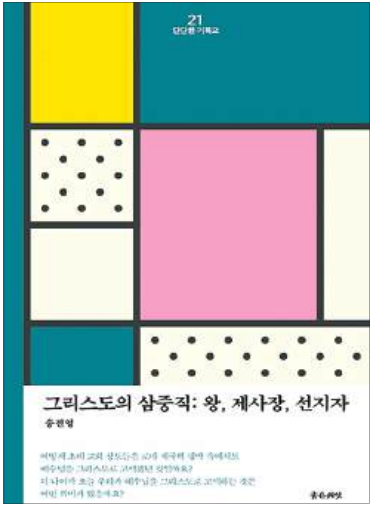


Saturday [토] 10.04.2025 — 6:30PM	Sunday [주일] 10.05.2025 — 7:30PM	Friday [금] 10.10.2025 — 7:30PM
새생명비전교회 4226 Verdant Street Los Angeles, CA	감사한인교회 6959 Knott Avenue Buena Park, CA	나성영락교회 1721 North Broadway Los Angeles, CA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단단한 기독교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삼중직, 교회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알게 하는 통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송진영 | 좋은씨앗 | 152쪽 |
8,000원

‘이 책은 <단단한 기독교> 시리즈 21번째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Munus Triplex)에 대해 다룬다. 예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행하신 각각의 역할과 그 의미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을 분석한다

목회적 적용 가능성:
예수님의 삼중직 개념을 신학적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목회적·신앙적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성: 조직신학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일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다

좋은씨앗에서 ‘단단한 기독교’ 시리즈 21번째 책이 나왔다. 이 시리즈 취지가 무엇인지 출판사는 이렇게 소개한다: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자라가는 데 꼭 필요한 기독교의 기본진리를 한 가지씩 다룬다. ... 어려운 신학 용어와 딱딱한 본문과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부담스럽게 다가오던 주제들을, 목양의 언어로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지루하지 않게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는 단단한 진리로 확신 있게 대답하도록 돕고, 우리의 소중한 다음 세대를 금강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군사로 세우도록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21번째 책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다룬다. 주제 자체가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리즈 취지에 맞게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지루하지 않게 설명’한다.

저자는 ‘목양의 언어’로 말하고 쓰는 데 적합한 송진영 목사다. 작은 무역화사에서 직장생활 경험을 해본 터라 성도들의 상황과 수준을 잘 이해하고, 강남일교회, 충주 양문교회를 거쳐 지금은 가좌동광교회 부목사로 섬기기 때문에 목회자의 마음으로 진리를 친절하면서도 정확하게 잘 전달해 준다.

저자가 뒤늦게 만난 개혁주의 신학에 담긴 성경적 진리와 신앙 유산을 이 책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소원과 열정이 잘 드러나는 책이다.

“나는 신학에 전혀 관심 없다. 다만 그리스도만 알고 싶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사람이 만든 이론에 집착하고 성경보다 철학에 더 권위를 두는 것을 멀리 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신학이라는 사실에 철저히 무지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호칭이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와 같다(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 1:41).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메시아는 어떤 면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분께 어떤 은혜를 얻고 어떤 반응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가? “다만 그리스도만 알고 싶은” 사람이 답해야 할 신학적 질문이 이렇게나 많다. 저자 송진영 목사는 이런 여러 질문에 성경과 신조를 통해 답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모든 신자가 동의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구원론을 앞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각각 맡으신 직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공적 사역, 곧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구약성경을 통해 예언되온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각각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으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영구적으로 성취하셨다. 저자는 이 사실을 성경을 근거로 확증하고, 이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기독교강요, 벨직 신앙고백서 등을 통해 더 풍성하게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백성들에게 큰 평화와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과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 사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온갖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진리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 발 나아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 받은 자를 통해 경험돼야 한다고 권면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를 다스리는 머리이시고, 교회를 중보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감람산. ©픽사베이

제사장이시며, 교회에게 말씀하는 선지자이심이 명백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교회에 부여하신 성령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며 가르칠 직분자를 세우신다.

그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은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고,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 예수님이시다. 저자의 권면은 직분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필자에게도 도전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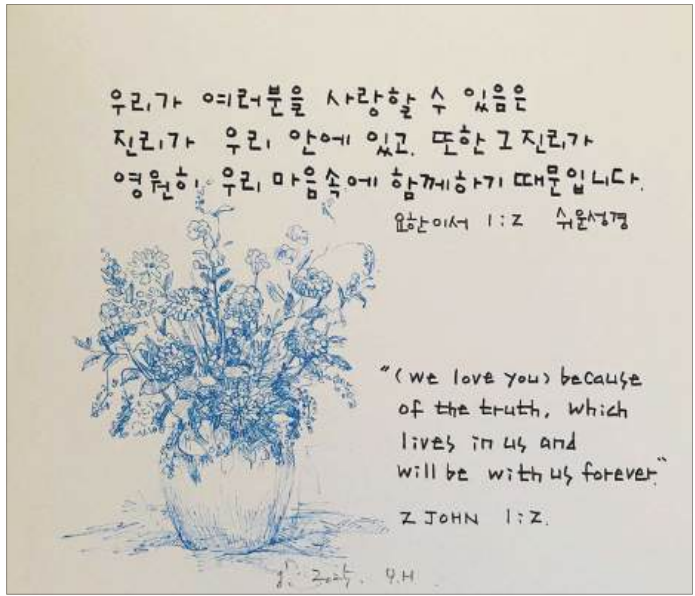
목자는 목자장을 닮아야 할 책임이 있고, 양무리는 목자장을 닮아가는 목자를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그

렇게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담당한 삼중직을 교회는 계속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험해야 한다.

‘단단한 기독교 시리즈’가 그 취지에 맞게 성도들을 깊고 풍성한 성경의 진리로 인도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담대히 증거하고 단단히 붙잡으며, 확실히 전수하게 하는 유익한 도구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 +tax

①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밀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Bee Pollen
\$45 +tax

②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Royal Jelly
\$25 +tax

③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서적 『훈아진언』

한국인들에게 그림으로 처음 선보인 예수 이미지

메리 스크랜튼 기독교 교육 교재
유교 문화로 여성 천대 조선에
여학교 설립하고 교재도 제작
아이들 눈높이로 성경 설명해
53장 중 23장에 삽화 수록돼

유명 화가 대신 사실적 묘사
동방박사, 오병이어, 나사로
최후의 만찬, 예수 승천 등
예수님 공생애 집중적 다뤄
로마 시대 튜닉에 긴 머리
서양 기독교 도상 전형성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Mary F. B. Scranton, 1862-1909)는 1886년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정동에 세웠다. 고종으로부터 '이화(梨花)'라는 교명과 현판을 하사받으면서, 국가로부터 공인된 교육기관이라는 신뢰를 주었다.

유교를 건국 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이 학문을 닦는 것을 '부도(婦道)'에 어긋나는 일이라 보았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제도적 교육기관을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여성의 학습기회 박탈 이면에는 유교라는 강력한 정치 이념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부조리한 현실을 깨물은 스크랜튼 선교사는 여성 역시 체계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

다고 여기고, 곧바로 실천에 옮겨 한국 최초의 여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이화학당을 설립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스크랜튼 여사는 '선교 보고서(1889)'에 한문을 번역할 수 있는 인력을 요청했다. “이 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데 무척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이나 사전, 문법서 없이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 손에 쥐여 줄 전도지 한 장조차 없습니다(이고는, 19세기 한중 개신교 전도문서의 번역자와 번역태도 비교, 151쪽).”

스크랜튼 선교사가 머리에 그리고 있던 것은 영국의 작가 파벨 리 머티머(Favell Lee Mortimer, 1802-1878)가 쓴 『새벽 The Peep of Day(1833)』을 번역하는 것이었다. 참고로 머티머는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 눈높이에 맞춘 주일학교 교재와 아동용 세계사, 지리서, 언어 교재를 쓰기도 했는데, 이 책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려는 취지로 쓰인 아동용 기독교 교육 교재였다. 1833년 피카딜리의 해처드에서 출판되었을 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선교사들에 의해 세계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읽혔다.

또 이 책은 중국 각 지역에서 『訓兒眞言(훈아진언)』으로 중역될 만큼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스크랜튼 여사는 물론 영어판을 소장하고 있었지만, 저본으로 삼은 것은 미국인 샐리 홈즈(Mrs. Sally Holmes)가 펴낸 중역본 『訓兒眞言』이다. 이 책은 산둥 지방 기독교에서 교재로 사용하던 것이었다.

『새벽 The Peep of Day』의 주요 용어는 샐리 홈즈의 중역본을 따랐는데, 서양 선교사가 번역자였다면 영문본을 원본으로 삼아 한역본 내용이 영문본과 더 가까워야 했지만 한역본은 중역본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크랜튼이 직접 번역에 참여했다기보다 중역본 『訓兒眞言』을 한글로 번역한 지인의 조력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학계의 중론이다.

『훈아진언』은 1887년 발간된 존 로스의 한글 신약 전서인 『예수성



▲제30장, 예수- 예루살렘에 나아가신 강론, 〈훈아진언〉 중, 1894.

교전서』보다 6년 뒤인 1893년 삼문출판사에서 간행된 초기 기독교 문서이며, 이듬해인 1894년 다시 간행하였다.

책의 구성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체가 창조된 과정과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기르는 내용, 그리고 인간의 영혼, 천사, 마귀, 아담과 하와에 대해, 성경 속 인물과 예수의 생애를 포함하여 총 53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23장에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삽화는 자유로운 선의 효과를 기초로 책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유명 화가의 것은 아니지만 사실적인 묘사로 독자들에게 대략적인 줄거리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었다.

『훈아진언』의 삽화는 모친이 아이를 사랑하는 장면부터 예배하러 온 박사들, 바다 위 풍랑, 가나안 혼인잔치, 오병이어 사건, 나사로의 부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최후의 만찬, 예루살렘 입성, 수심에 찬 베드로, 무덤 강론, 예수 승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훈아진언』에 등장하는 예수의 이미지는 죄인들을 만나고 먹이고 치유하며 바다를 다스리며 함께 울고 웃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림에서 눈여겨 볼 것은 예수의 이미지가 한국인들에게 그림의 형태로 처음 선보였다는 것이다. 예수의 모습은 로마 시대 튜닉을 착용하고 긴 머리를 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미술사학자 김나원은 “서양 기독교 도상의 전형성이 그대로 표현된 모습”이라고 했다.

지금이야 여러 형태의 예수 그리스도 초상을 볼 수 있지만 구한말에 그런 도상은 흔치 않았고, 삽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 수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런 인물 묘사는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려주었다.

이 도상은 한일합방 후 김은호가 조선미술전람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제로 출품했을 때 참고작품으로 활용된 것으로도 추측된다. 포즈는 다르지만 복장과 인물 표

현 면에서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훈아진언』의 예수 이미지는 1920년대 김은호의 〈부활 후〉보다 앞서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의 제작자는 몇 작품이 'Adeney'라는 것 외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미지 편집 과정 중 사인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책의 삽화들은 여러 나라에서 수정 편집 과정을 거쳐 출판되는 가운데 그림의 일부가 잘려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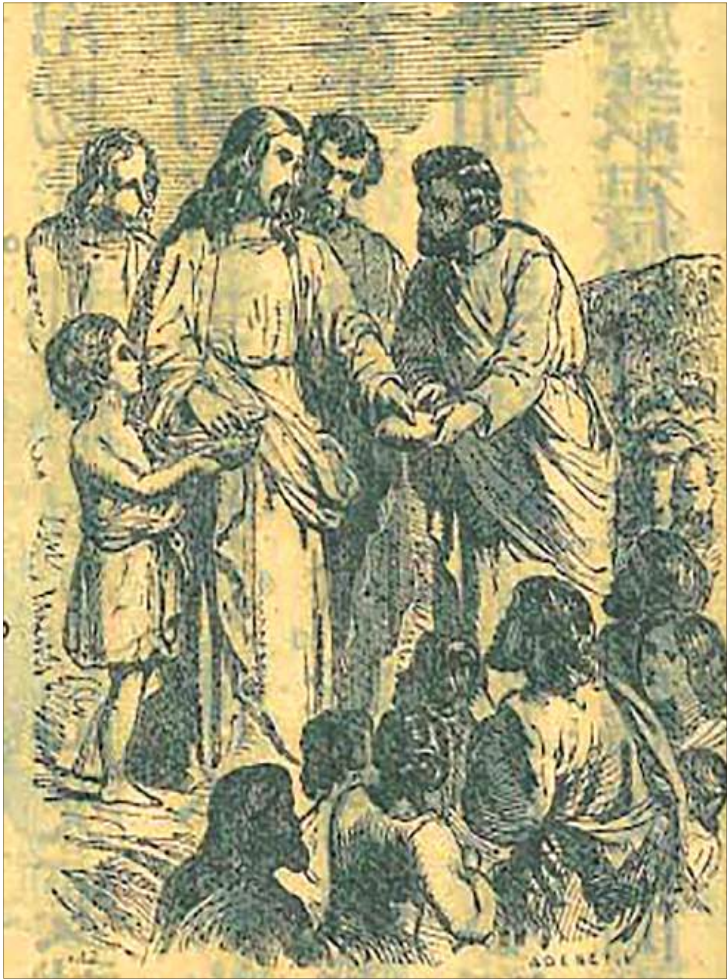
또 삽화 제작자는 삽화를 그릴 때 유럽 고전화가들의 작품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제2장 '모친이 아이 사랑하는 강론'에서는 에티엔 조라의 〈엄마들의 모범〉(1740년대), 제29장 나사렛 강론에서는 펠 브란트의 〈라사로의 부활〉(1636), 제38장 잔치 예비강론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1630-31), 제50장 예수 승천에서는 펠브란트의 〈예수의 승천〉(1636)을 각각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앞의 인용에서 보았듯이 스크랜튼 선교사가 이 책을 소개한 데는 선교의 시급성이 가장 큰 동기로 작용했다. 아동용으로 집필된 것이어서 성경을 처음으로 접한 사람이라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훈아진언』은 1차적으로 기독교 교육 차원에서 발간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반들로부터 '암클' 또는 '언문'으로 천대받던 한글을 전도문서로 만들어 국민을 깨우치게 하는 문명화의 부수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것은 한글의 실용성과 우수성을 깨달은 스크랜튼과 같은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스크랜튼이 설립한 이화학당과 거기서 펼친 교육활동은 우리의 굴곡진 문화와 역사 가운데 빛을 발휘했고, 대중들에게 희망의 불을 지펴주었다. 뜻하지 않은 서구 문화와의 만남은 오랜 기간 망망대해의 섬처럼 고립돼 있었던 한국인들의 의식을 일신하고 눈을 뜨게 만들었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제28장, 예수- 만두와 고기로 오천인을 먹인 강론, 〈훈아진언〉 중, 1894.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 12월 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령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대학로에서 매진 행렬을 기록한 연극 <사랑해 엄마>가
LA로 찾아옵니다!

사랑해 엄마

"엄마... 내 혼자서 잘 할수있나?"

"그라몬!
누구 아들인데!"

미국 LA 공연



조혜련 | 조지환 | 정지환 | 유민정 | 엄대 | 이서주 | 김연수

Downey Theatre
8435 Firestone Blvd
Downey, CA 90241

downeytheatre.org

Sunday
10.12 — 7pm

Monday
10.13 — 2pm, 7pm

Ticket
\$50 | \$60

(213) 357-1565
(562) 766-9494 (text)

주최
주관

**LOVING
FORSHIP**

